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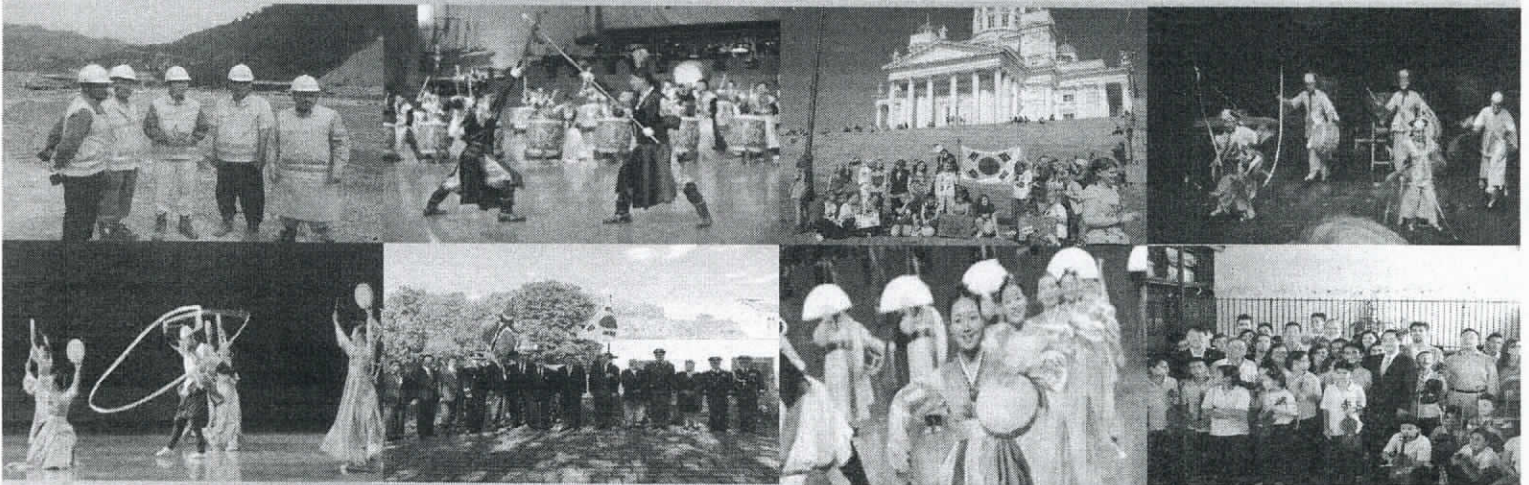
발간등록번호

11-1260000-000740-01

외 · 교 · 통 · 상 · 부 · 이 · 야 · 기

# MOFAT STORY

· 모팻스토리 콘텐츠 모음집 ·



외교통상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

## 책을 펴내면서

평범한 일상을 사는 국민들이 외교 현장의 민낯을 볼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외교의 현장은 엄숙하지만 고상하지만은 않고 조용하지만 치열한 곳입니다. 오히려 냉철한 머리보다 부지런한 손과 발이 많이 요구되는 곳이라고 할 정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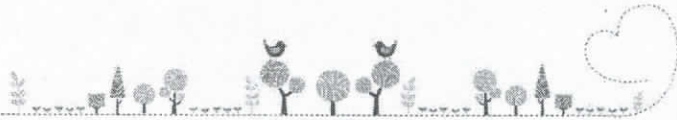
여기 모은 55편의 글들은 이런 외교현장의 모습을 해외에서 근무하는 외교관들의 애환과 고뇌, 보람을 통해 보여드리고자 엮은 것입니다. 독자 분들은 동 시대를 사는 한국인의 감수성과 외교관으로서의 특수성을 글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보고 배우며 시행착오를 거쳐 세상에 대한 이해와 인간적인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외교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독자 분들의 세상과 외교에 대한 이해도 넓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 글들은 외교통상부의 소셜허브인 '모팻스토리'에 최근 1~2년 사이에 해외공관 근무자들에 의해 기고된 글들이며 이미 외교부 블로그나 페이스북 등에도 올라왔던 글들을 엮은 것입니다. 사진이 텍스트보다 더 많은 글도 있고 직원이 직접 그린 만화로 된 콘텐츠도 있습니다. 오지의 열악한 환경에 정신과 몸을 적응시켜 나가는 내용부터 일하면서 육아까지 맡고 있는 여성 외교관의 고뇌가 서린 글도 있습니다.

부디 이번 모음집이 해외의 외교현장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께 외교의 현장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2년 12월  
외교통상부 대변인 조 태 영

---



- 103 · 포니의 꿈이 드림 Car로 변모한 에콰도르에서 인사드립니다.
- 105 · 교도소에서 온 편지
- 107 · '프로에스 노이에스 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인사드립니다.
- 111 · '곧 다투 오르!' 노르웨이에서 인사드립니다.
- 112 · 바이킹의 후예에게 한국차를 팔다.
- 115 · 뉴질랜드의 현충일 ANZAC Day 행사 참석 단상
- 118 · 히로시마 '플라워 페스티벌'에 조선통신사가 나타났다?!
- 122 · 감동의 고궁 한국학교 재개교 현장!!!
- 124 · 2012 노르웨이 국제군악제(Tatto) 개최
- 132 · 어느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한국사랑,  
그리고 그 한국후배들이 이룩한 기적
- 136 · 한국을 느껴보세요.
- 138 · 우리 같이 놀자!
- 140 · 여러분들은 멀리 태평양 건너 코스타리카에  
우리나라 이름을 가진 초등학교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 143 · 스스로의 책임 하에 이용하세요.(Benutzung auf eigene Gefahr.)
- 150 · 내일의 희망을 연주하는 코스타리카 청소년 오케스트라,  
깊어가는 한-코스타리카 우정
- 154 ·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의 CSR 포럼 : 무대 뒤 이야기
- 164 · 핀란드에서 헌혈해보기
- 170 · 산타클로스의 나라? 앵그리버드의 나라!!
- 180 · 한국 기업의 파키스탄 댐 건설
- 183 · 수제(手製) 만화(Portugal 이야기)
- 197 · 시수(SISU)와 람스테드(RAMSTEDT)
- 203 · 비울빈통신



---

# 수제(手製) 만화 - Portugal 이야기(1)

---

2012. 7. 30.

박태진, 주상파울루총영사관 영사

모든 이들에게 ‘처음’이라는 존재는 각별하다.  
처음 학교를 가던 날, 처음 사회생활을 하던 날,  
처음 사랑을 하던 날 등등.  
아직은 경험해보지 않은 것이기에  
기대와 걱정으로 지새기에 그 처음이라는 순간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

외교관 생활에 있어 가장 잊혀지지 않는 ‘처음’의 순간은 어떤 것일까? 나의 경우 해외공관의 첫 부임지였던 포르투갈에서의 공관 생활이 그랬다. 적지 않은 나이에 외교부로 전직하면서 만 서른여섯에 사랑하는 아내와 돌도 지나지 않은 아들을 두고 인천공항을 떠나 만 16여시간만에 보았던 리스본의 야경, 그리고 그를 보면서 첫 공관 생활이자 첫 해외생활인 이곳에서 앞으로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가슴 졸이던 순간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한국에서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고 150여명의 교민에 한국식당은 커녕 식료품점도 없어 낯설기만 했던 나의 리스본 생활, 걸으론 태연한 척 했지만 너무나도 걱정스러웠고 서툴기만 했던 초보 외교관시절. 다행이었던 것은 그런 걱정을 잊혀주도록 나를 따듯하게 맞아주었던 공관 동료

직원들과 우리네 정(情)과 같은 마음을 가진 포르투갈 사람들 덕분에 나는 무사히 포르투갈에서의 첫 해외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포르투갈에 지내면서 이렇듯 좋은 사람들에게 나중에 보은의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중에 하나가 포르투갈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좀 쉽게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 지내면서 우연히 알게 된 지식들, 출장 등으로 지방을 들렸을 때의 일들을 지인들에게 얘기했더니 재밌다면서 반응도 좋아 이후로는 자료도 모으고 취미삼아 그리던 만화를 연결해보기도 하였다. 원래는 한 스무 편이 넘게 만들려고 했었는데, 모자란 실력에 시간도 녹록치 않아 대여섯 편만 그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당시 그렸던 것을 모아 연재(쓰고 보니 좀 그렇네..)하려고 하는데 제목에서 달았다시피 이것은 전문 만화가가 아닌 취미로 만화를 그리는 사람이 만든 수제(手製) 만화이니 독자 분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감히 올렸다.

초짜 외교관의 서투름과 내 아내와 아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었던 포르투갈 사람들을 생각하며, 포르투갈을 이해하는데 1%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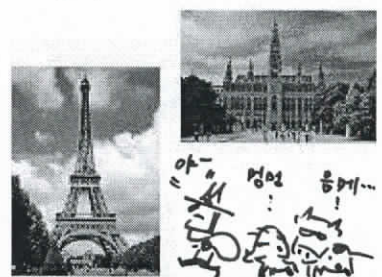
**'몰랐던' 나라  
포르투갈**



Monumento a los Descubrimientos  
Discoveries Monument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대학시절 한번쯤 통과의례처럼 유럽 배낭여행 일주를 시작한지 한참이 되었다.

대부분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서유럽국가들이나 오스트리아같은 중유럽을 위주로 다닌다.



하지만 포르투갈은 엄연히 유럽의 일부이고 세계사시간에 들어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는 아직 생소하기만 하다.

그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유럽의 끝자락에 있어 한국에서는 매우 먼데다

그다지 알려진 유명한 관광지도 없고 '유럽의 뒷골목'이란 생각에 별 관심이 없는 듯하다.



기껏해야 최근에 스페인을 관광하며 리스본을 하루 정도 다녀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가 아는 포르투갈은, 심지어는 2002 한일 월드컵때 우리와 16강을 겨뤘던 나라고,

한때 우리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코엘류'가 포르투갈 사람이라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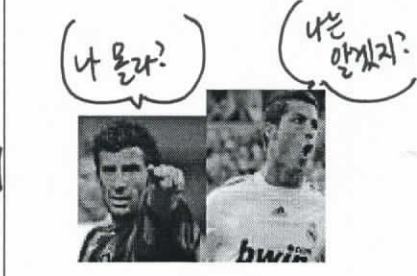


코엘류: 포르투갈어로 '토끼'란 뜻.

나 조차도 이곳 리스본에 오기 전에는 포르투갈이 과거 15,16세기에 스페인과 한때 대항해시대를 열었고

마카오가 포르투갈어를 쓰는 과거 포르투갈 식민지라는 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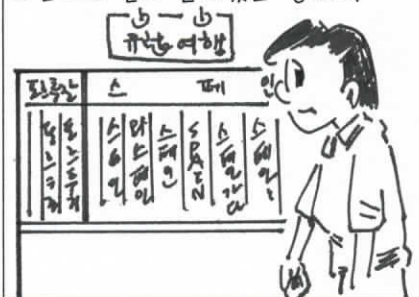
최근에는 루이스 피구라던지 오늘날같은 축구 슈퍼스타들을 배출한 국가라는 정도 밖에 몰랐다.



그나마 이정도도 많이 아는 수준이다.

실제로 한국에서 포르투갈에 대한 안내책자는 많지도 않거니와, 기껏해야 스페인하고 같이 붙어있는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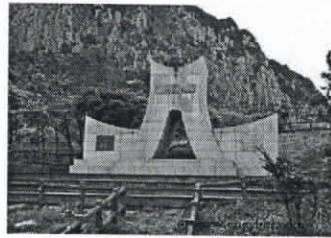
여기서 질문이 있다, 우리는 포르투갈을 '모르는' 것일까, '몰랐던' 것일까?



자, 그럼 퀴즈 하나, 우리 나라에 가장 먼저 도착한 서양인은 누구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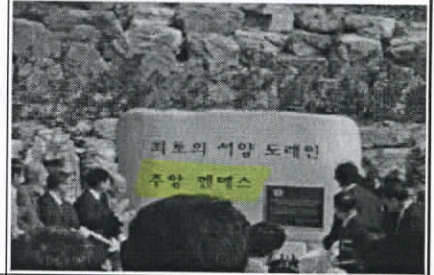


대부분, 1653년 일본으로 가던 중 제주도에 표착되어 10여년간 억류되었던 네덜란드인 '하멜(Hamel)'을 생각하겠지만,



제주에 있는 하멜 기념비

최근 주장된 학설<sup>1)</sup>에 따르면 이보다 거의 50년전인 1604년 포르투갈인이 통영앞바다에 표착했다고 한다. (아래는 통영시의 기념행사 사진)



그런데 이보다 더 포르투갈은 중세 우리나라 역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게 있는데,



임진왜란때 왜군의 '조총'을 처음 전해준 것(1543년)이 바로 포르투갈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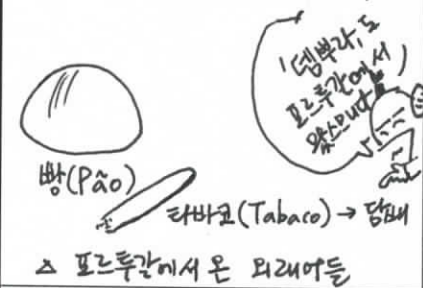


한편으로는 조선을 도우러 온 명나라 군대에 포르투갈 병사가 포함되어 있기도 해<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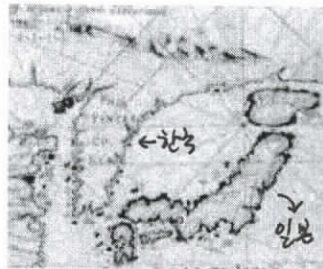
△ 2편이 나란한 포르투갈 병사

15~16세기에 이미 발달된 항해술을 바탕으로 동양의 마카오와 일본과도 활발히 교류했던 포르투갈은 우리에게 익숙한 많은 것들을 가져 왔는데,



△ 포르투갈에서 온 외래어들

그들의 항해지도에 한국(Coria)을 표기하여 서양세계에 우리나라를 알리기도 했지.



1640년에 제작된 포르투갈 지도

이후 포르투갈이 쇠락해지면서 두 나라간의 교류는 1961년 외교관계가 수립될때까지 거의 없긴했지만,



국교수립 이후에는 국제무대에서 줄곧 우리의 입장을 지지해준 전통적인 우방국이며,



스페인이라는 강대국에 둘러싸여 끊임 없이 주체성을 지키고자 노력했고, 어두운 과거에서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려는 점은,



우리 한국과 매우 유사한 점이 많다고 하겠다.



1) 관동대 박태근 객원교수는 2004.5 '통영탄생 4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에서 규장각에서 발굴한 조선왕조의 국경수비일지 '등록유초(騰錄類抄)'의 일부를 인용, "1604년(선조 37년) 6월 15일 포르투갈 상인 '조앙 멘데스'가 통영에 표착했다"고 밝혔다. 멘데스의 통영 표착은 1653년(효종 4년) 네덜란드인 하멜 일행이 제주도에, 이보다 26년 앞선 1627년(인조 5년) 같은 네덜란드인 베르테브르(박연·朴延)가 경주 해안에 도착한 것보다 각각 49년, 23년 앞선다. '지완면제수(之緩面第愁)'로 불린 34세의 포르투갈 상인 조앙 멘데스는 일본 나가사키로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 통영 해안에 표류하면서 중국인 16명, 일본인 32명, 흑인 1명 등과 함께 조선 수군에 생포돼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

2) 주한 포르투갈문화원이 1999년 펴낸 '포르투갈 신부가 본 임진왜란 초기의 한국'이라는 책자에 따르면 왜란 때 포르투갈 수군병사 4명이 명군을 도와 왜군 전함 폭파임무를 완수, '바다의 귀신(海鬼)'으로 불렸다. 이들의 활약상은 명군 철군 장면을 그린 '천조장사전별도(天朝將士餞別圖.1599년)에 나타나 있다.

# “壬亂대 多國軍 참전”

## 功臣송모회 異色주장

36쪽 26년 4월 10

포르투갈·인도 등 11개국 명과 함께 宣祖實錄서 확인... 실증조사 요구

해설을 받아냈으나 그 5개의 지명만 그곳에 다닌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佛郎機)는 1577년 이미 마카오에 포르투갈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포르투갈의 분묘묘지 조서 31년 5월 26일條에 포르투갈의 참수병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한편 사료연구자인 박정호(가)의 공개한 『明朝上卷』에도 포르투갈의 분묘묘지 조서 31년 5월 26일條에 포르투갈의 참수병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해설을 받아냈으나 그 5개의 지명만 그곳에 다닌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佛郎機)는 1577년 이미 마카오에 포르투갈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포르투갈의 분묘묘지 조서 31년 5월 26일條에 포르투갈의 참수병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해설을 받아냈으나 그 5개의 지명만 그곳에 다닌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佛郎機)는 1577년 이미 마카오에 포르투갈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포르투갈의 분묘묘지 조서 31년 5월 26일條에 포르투갈의 참수병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1. 王朝實錄-宣祖 31년 5월 26일條에 포르투갈의 참수병의 모습과 역할에 대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 출처>
- 좌: 경향신문 92.5.24일자 사회면
  - 우, 하: 포르투갈신부가 본임진왜란 초기의 한국 (루이스 프로이스 지음/강병구 옮김, 99.12)



▲ 포르투갈 병사

1. 天朝將士雜別圖 - 壬辰亂에 참전한 明나라 군사가 철군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 대륙 중 동쪽 화북인데 중양에 정착한 사람이 邢玠 장군이며 왼쪽 海澄리는 깃발 아래 수레에 탄 佛邦인이 포르투갈의 참수병이다



# 좋은 나라, 포르투갈



처음에는 잘 몰랐던 내가 한 1년을 살아보니, 이나라가 나의 첫 해외 근무지였다는 것은 참 행운이란 생각이 들었다.



마찬가지로, 이곳에 살고있는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 대부분이 포르투갈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포르투갈의 어떤 점이 좋냐고 질문을 받는다면 몇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1. 뭐니뭐니해도 처음 와닿는 것은 쾌적한 날씨, 여름에 간혹 35~40도로 올라가긴 하나 습기가 없어 그늘만 가면 선선하다.



겨울도 영하로 내려가는 적이 별로 없는 온화한 날씨이며, 그래서 영국이나 독일인들이 휴가는 물론 노후를 포르투갈에서 정착하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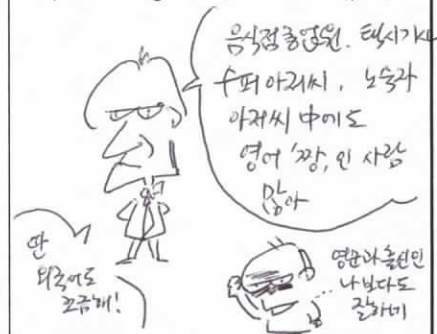
2. 친절함 국민성. 포르투갈인들은 외국인들에 대해 비교적 친절하며, 정이 많은 사람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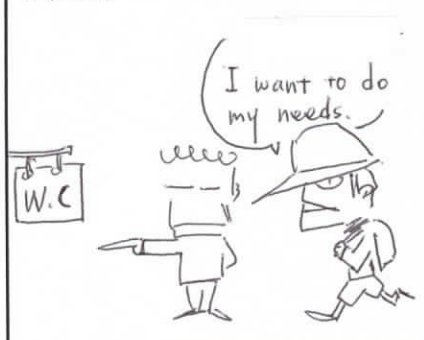
대부분 내성적인 국민들이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요청에 인색하지 않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높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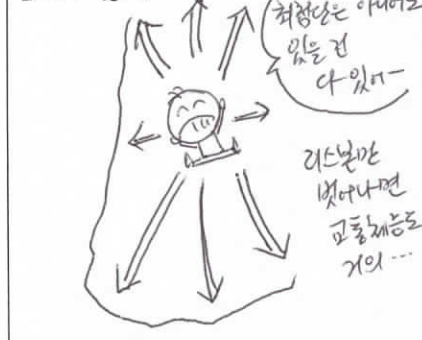
3. 젊은층을 중심으로 대도시에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다. 포르투갈인의 40% 이상이 영어 등 1개 이상의 외국어가 가능하다는 자료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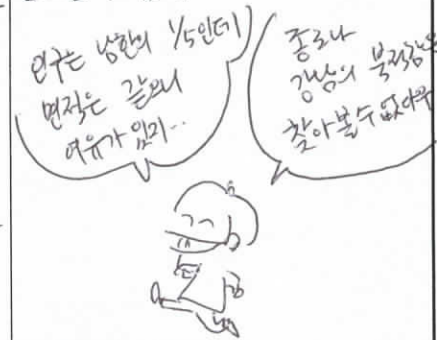
외국인의 입장에서 언어소통이 매우 중요한 생활조건임을 감안할 때, 영어 구사가 가능하다는 것은 상당히 큰 매력이다.



4. 국내 이동의 편리함. 포르투갈은 다양한 운송수단을 바탕으로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으며, 교통체증도 심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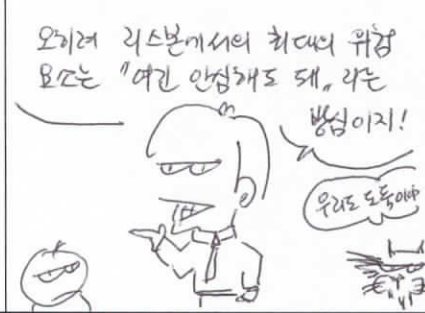
특히, 주말이나 여름휴가철에는 대부분의 포르투갈인들이 해변이나 고향 집으로 가기 때문에, 시내를 여유있게 확보할 수 있다.



5. 안전한 치안, 리스본을 비롯한 포르투갈 대부분은 아침부터 밤까지 곳곳에 경찰이 배치되어 밤늦게 다녀도 비교적 안전한 편이다.



물론, 리스본 구시가 등 주요 관광지에는 위험하며, 최근 이민자 등 위험요소가 증가하고 있으나 파리 등 다른 유럽 대도시보단 치안상태는 매우 좋다.



6. 타인종에 대한 관대함, 포르투갈은 역사상 이민족의 침입도 있었지만, 자신들이 진출을 통해 다양한 인종들과의 교류의 기회가 많았다.



그래서, 다른 민족에 대한 거부감이나 편견은 상대적으로 적고, 현재도 다양한 인종이 조화롭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 전세계 8개국, 2억여만명의 포르투갈어 사용국가로 가는 관문이기도하다. 주로 과거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국가들이다<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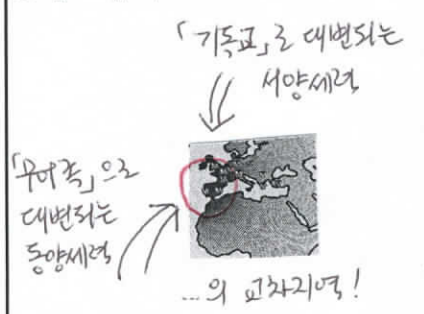


즉, 포르투갈을 안다는 것은 블록화되고 있는 세계의 한 축을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지름길이 될 수 있지.



**ACCESS ÁFRICA FORUM**  
 PORTUGAL - A GATEWAY TO ÁFRICA  
 CENTRO CULTURAL DE BELÉM LISBON | JUNE, 16 - 17,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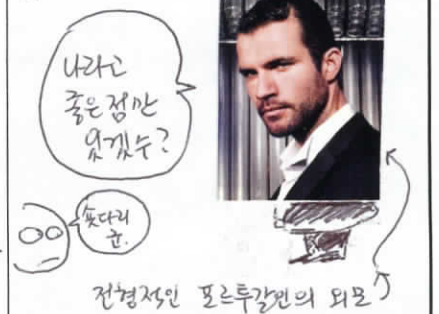
8.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동서양을 아우르는 문화적 다양성을 볼 수 있다는 점도 있지.



그래서, 포르투갈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이 서양으로 나갈 수 있는 좋은 디딤돌 역할을 해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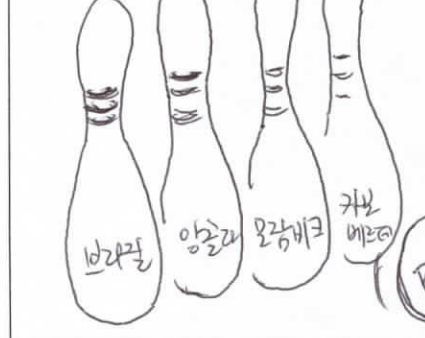
물론, 포르투갈이라고 다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아쉬운점도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장점들을 하나로 요약한다면, 포르투갈은 우리가 다른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훌륭한 발판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점이야.



포르투갈과 관련있는 나라들이 그간 우리나라에는 조금 생소하거나 접근이 쉽지 않았던 점을 감안한다면,



포르투갈을 안다는 것은 일석다조(一石多鳥)의 일이 되는 것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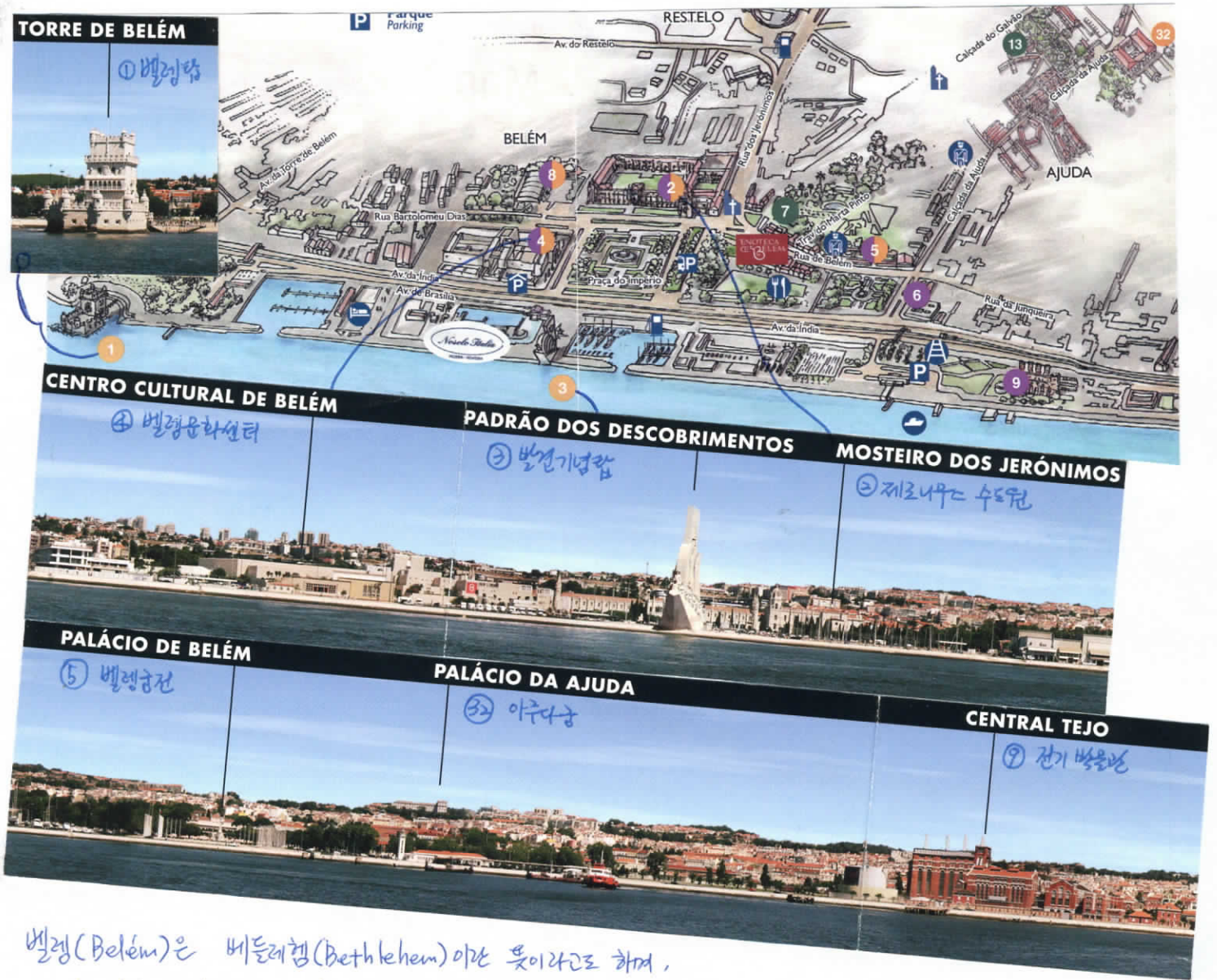
3) 포르투갈어 사용국 공동체(Comunidade dos Países de Língua Portuguesa, Community of Portuguese Language Countries, 약칭 CPLP) 포르투갈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간의 친목과 단합을 다지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 기구이다. 1996년 창설되어 포르투갈, 브라질, 앙골라, 카보베르데, 기니비사우, 모잠비크, 상투메프린시페, 동티모르 등 8개국이 회원국이다.

★ 테주(Tejo)강에서 바라본 리스본 전경

테주강은 스페인에서 발원하여 이베리아반도를 관통하는 길이 1,000km가 넘고, 유역면적 8만여km<sup>2</sup>의 이베리아반도 최대의 강이다.

리스본은 이 테주강 하구에 자리잡고 있으며 하구의 폭이 매우 넓어, 언뜻 보기에는 마치 바다가 아닌가하는 생각까지 들게한다.

리스본의 주요 관광지인 벨렝, 코메르시우광장, 4.25 다리 등은 테주강변에 모여있어, 유람선(www.lvt.pt)을 타고 조망이 가능하다.



벨렝(Belém)은 베들레헴(Bethlehem)이란 뜻이라므로 하여, 리스본 관광의 1번지이기도 하다.  
 벨렝탑, 제르니무스 수도원 등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극한 마누엘 양식의 건축물이 있고, 우리나라에 '에그파르프'로 알려지기도 한 '파스테이스 드 나타(pastéis de nata)'라는 카스타드 케익을 파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 어떻게 400년전에 포르투갈 사람이 한국까지 오게되었나

이미 400년전, 포르투갈이 지금도 머 나면 나라인 한국까지 어떻게 이르게 되었을까?



그 중심은 중세의 황금에 견줄만한 가치를 지닌 향료 무역에 있다.



중세에는 그들의 주식인 육류를 요리 하거나 저장할 때 필수적인 향료에 대한 수요가 많았고, 그 루트가 가장 중요한 무역로였는데,



원산지인 인도 등지의 가격에 약 50 배에 달하는 이익을 낼 수 있는 후추 등의 향료는 당시 베니스를 중심으로 한 이탈리아 상인들이 독점했었다.



포르투갈의 경우, 이러한 향료를 필요로 하는 국가들 중 하나였지만, 그들이 직접 향료를 가져오는 루트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뭐 어쩌 각은거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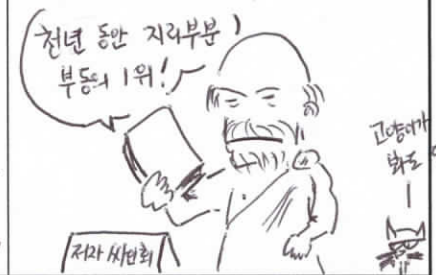
더구나, 1453년 오스만투르크의 동로마제국 정복은 기존 지중해를 통한 동방무역로 더욱 어렵게하였으며,



유럽의 끝자락에 위치한 포르투갈은 어쩔 수 없이 동방으로 향하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할 수 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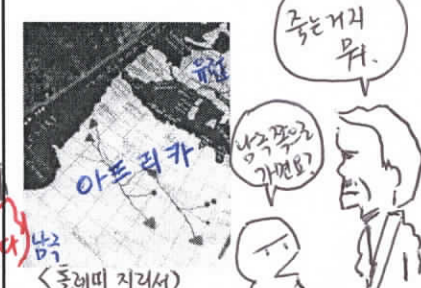


당시 유럽에서는 고대 그리스의 지리학자 Ptolemaeos가 쓴 '톨레미 지리서'가 널리 읽혀졌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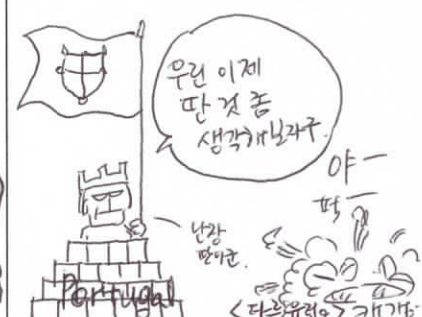


고양이 화조 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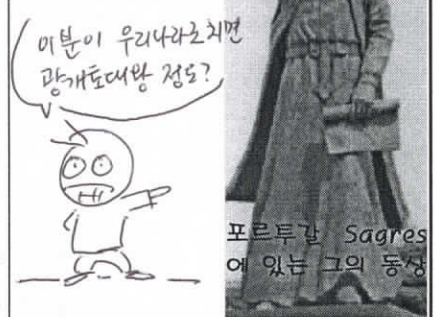
이 책에서는 아프리카대륙은 남극과 이어져있어 이를 돌아가는 항로는 없다고 언급하고 있어, 아프리카 우회항로 개척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지.



그러나, 당시 포르투갈은 이러한 상상속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었는데, 이미 일찌감치 독립국가를 형성하고 있었고,



D.Henrique 왕자 (1394~1460)라는 걸출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이지.



하하... 그렇게까지 고압하다.



포르투갈 Sagres 에 있는 그의 동상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포르투갈왕국의 평화로운 시대를 열은 주앙 1세의 3남인 그는 1415년 북서아프리카의 Ceuta를 점령한 뒤, 평생을 미지의세계 탐험에 헌신하기로 결심,



1418년 포르투갈 최남단 Sagres에 항해학교를 설립하고 근방 Lagos에 조선소를 세워, 이 지역을 항해사업의 전초기지로 만들었으며,



함대를 파견해 '떨떨꿈은 죽음의 바다'라는 Bojador곶을 넘어 본격적인 아프리카 탐험을 시작해 서아프리카 해안선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탐험 독점권도 확보했지.



개 - 사냥 (분해자) 남극

당시 좌절된 처자들의 울음

포르투갈 두승주사 리스본 향료광학상

Henrique 왕자가 다져놓은 수준높은 항해기술과 아프리카 항로에 대한 정보는 동방항로 개척을 국가적 사명으로 여긴 주앙2세에 의해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Born to go the EAST!**

(5월으로 가기위해 태어났다!)



1488년 바르톨로뮤 디아스가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에 도달해 아프리카가 동쪽으로 이어져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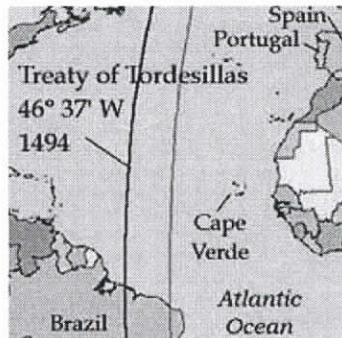
거의 동시에 육로를 이용해 인도로 파견되었던 페드로 드 카브랄은 인도에 도착한 이후 다시 동아프리카로 건너가 인도와 동아프리카 해안 관련 정보를 주앙2세에게 보고했다.



그즈음, 스페인의 지원을 받은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을 발견(1492)했다는 소식은 포르투갈·스페인 모두에게 미묘한 긴장을 조성하게되었는데...



양국은 서로간의 이익을 보장하고자, 세계를 2등분하는 토르데시야스조약(Tordesilas Treatment)<sup>3)</sup>를 체결하게되고(1494).



이를 바탕으로 포르투갈은 수십년간 개척해온 아프리카 해상 탐험에 대한 확실한 권리를 가지게된다.



주앙2세에 이어 즉위한 마누엘1세의 지원을 받은 바스코 다가마는 1497년 7월 리스본을 출발, 모잠비크·케냐 등 동아프리카를 거쳐 1498년 5월 인도 캘리컷에 도착했는데,



이는 포르투갈의 동방항로가 열리는 것을 의미하며, 370년 후 수에즈 운하가 개통될때까지 동서양을 오가는 대형 선박의 주요 루트가 되었다.



당시 포르투갈은 인구 120만의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동방항로 개척의 목적은 영토확장이 아닌 무역이었으며, 이를 위해 무력으로 주요 거점들을 장악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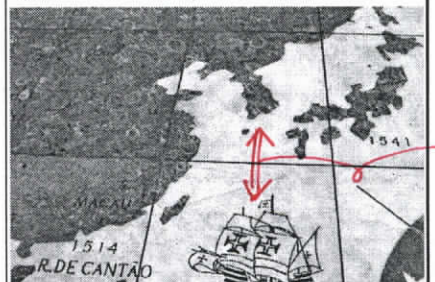
1510년 인도의 고아를 거쳐 1511년 말레이반도의 말라카까지 점령한 후, 비단·황금의 교역을 위해 중국에 진출했고 은의 수입을 위해 일본 나가사키에 무역상관(1543년)까지 두었지.



이렇게 개척된 포르투갈의 항로무역 루트는 강력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점차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이미 16세기 중반부터 포르투갈은 한반도의 바로 문턱에 있었던 세계적인 항해국가였던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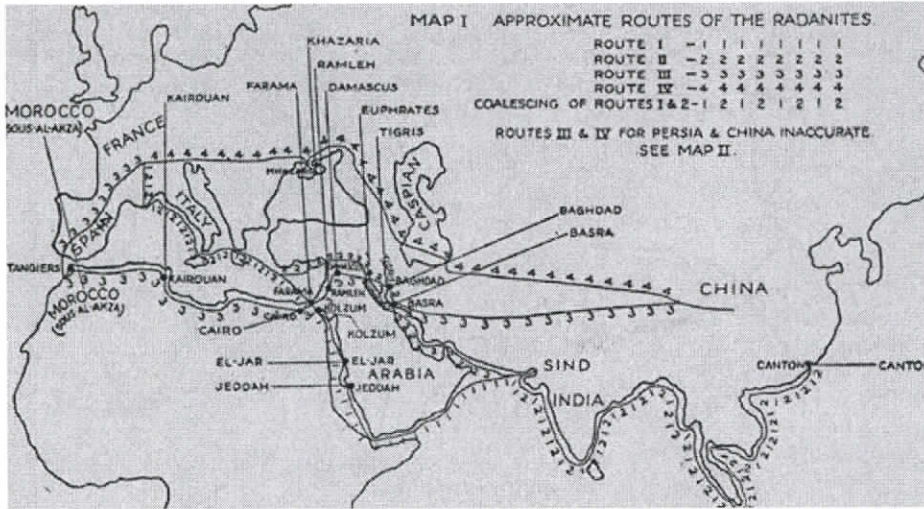
리스본 벨렝광장에 있는 포르투갈의 항해기록 바닥

가까웠 구만!

3) 교황 알렉산드로 6세의 중재로 체결된 이 조약은 '아프리카 서쪽 끝의 카보베르데 제도의 서쪽 370레구아(1레구아는 약 5km) 지점을 기준으로 서쪽으로 발견한 영토는 스페인이 동쪽으로 발견한 영토는 포르투갈이 소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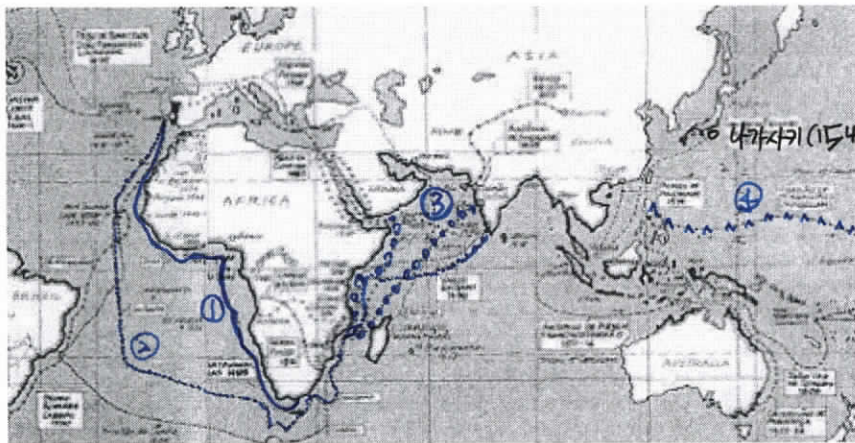
1. 9세기경 동방-지중해 무역 루트



보시다시피,  
기의 아프리카 건너는 건  
생상할 수 없는 것이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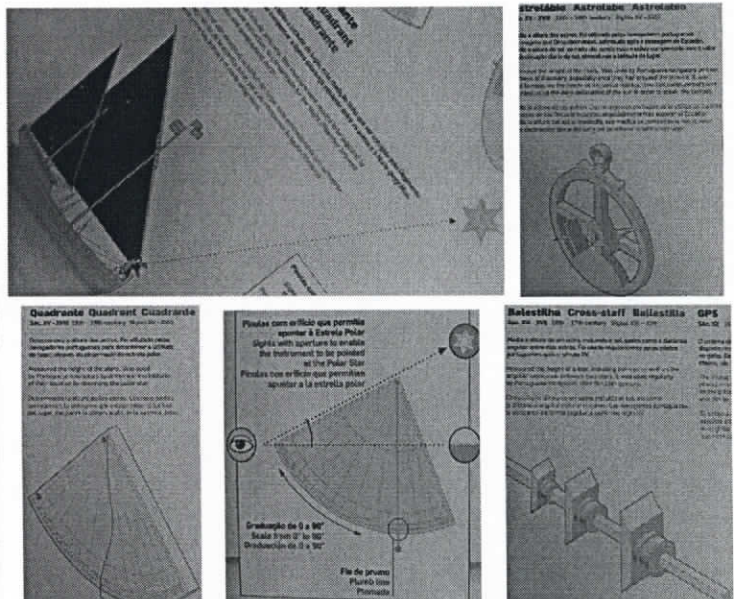
2. 15-16세기 포르투갈의 항로 개척



1. \_\_\_ 바르톨로뮤 디아스 (1488)
2. .... 바스코 다가마 (1498)
3. 0000 페드루 카브랄
4. ^^^^^ 마젤란

다른 집 같은 것도  
다 포르투갈인들이  
항해한 것들이야

3. 15-16세기 포르투갈의 항해술



장거리 운항이 가능했던 포르투갈의 대표적인 선박인 나우(Nau; 300~500톤급)가 한-포수교 50주년 기념우표에 우리의 거북선과 같이있다. 이미 15세기에 포르투갈은 선박축조술 이외에도 항해중 위치를 판단하고 항로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Sagres 요새 항해자료실에서 촬영한 자료).

# 포르투갈과 한국: 어제와 오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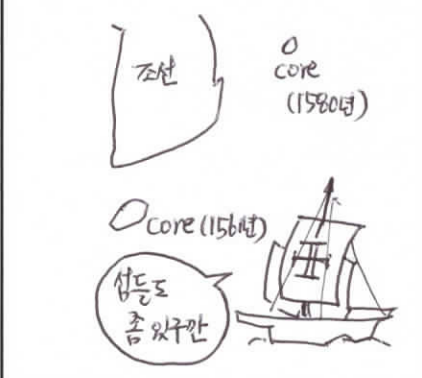
그렇다면 일본과 중국까지 진출했던 포르투갈인들은 이웃나라인 조선을 어떻게 보았을까?



이미 16세기초부터 포르투갈인들은 동아시아의 지도에서 한반도까지 묘사하는 지도를 제작했는데



1513~1580년대 제작된 포르투갈의 지도를 보면 한반도와 제주도, 울릉도까지 표시하고 있으며



1613년 Manuel Godinho가 제작한 '말라카에 대한 설명서'에 포함된 지도에는 한국을 'Coria'라고 표기해 현재의 모습과 유사하게 그려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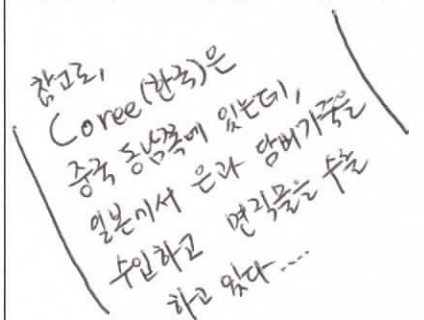
한편 포르투갈인들이 해외진출의 공식적인 목적으로 표방한 제1의 이유는 '기독교의 전파'였는데,



포르투갈의 한국에 대한 기록 역시 대부분 기독교 전파를 목적으로 나온 신부들 특히 예수회의 인사들이 쓴 보고서나 편지에 나오게되지,



최초의 포르투갈어로 된 한국 관련 기록은 1548년 예수회 신부 Nicolau Lanciloto가 인도의 Goa 총독에게 제공한 정보에서 등장하고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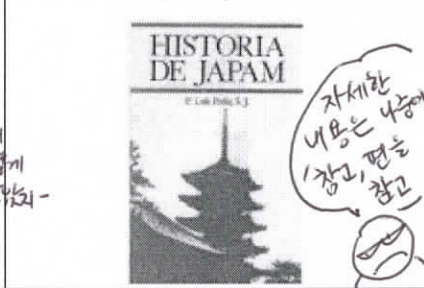
1571.2.4 예수회 신부 Gaspar Vilela가 포르투갈에 보낸 편지에서는 한국에 기독교 전파를 목적으로 입국을 시도했다는 내용도 나오는데,



1578.11.8 예수회 신부인 Antonio Prenestino가 일본에서 인도로 보낸 편지에는 1577년 포르투갈인들이 한 국땅을 밟았다가 몰살당했다는 내용도 있어,



한편, 1586년 Luis Frois<sup>4)</sup> 신부가 저술한 '일본사(Historia de Japam)' 제1권에는 임진왜란 초기 일어난 일들을 10장(제70~79장)에 걸쳐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일본의 조선 침략 배경과 코시니 유키나가의 군사준비, 그리고 전쟁중 조선인들의 애국심과 왕에대한 충성심 등에 대해 지인들에게 들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묘사하고 있다.



4) 1532년 리스본에서 태어난 그는 1548년 예수회 신부가 되어 인도 고아로 건너간 뒤 아시아 지역 선교에 힘쓰다, 1566년 일본에 도착하여 일본어를 배운 뒤 28년간 사역하게된다. 그가 저술한 '일본사'는 일본에 있는 주교단의 활약상 이외 당시의 사회·지리·정치적인 측면도 폭넓게 기술하고 있다.

이후, 앞서 언급했다시피 포르투갈인 조앙 멘데스가 1604년 통영에서 붙잡혀 4달동안 억류되었다가 중국으로 보내졌다는 건 우리 역사서에도 나와 있지.



이후, 포르투갈의 국운이 쇠하면서 우리와의 관계는 1961.4.15 정식 국교가 수립되어야 다시 재개되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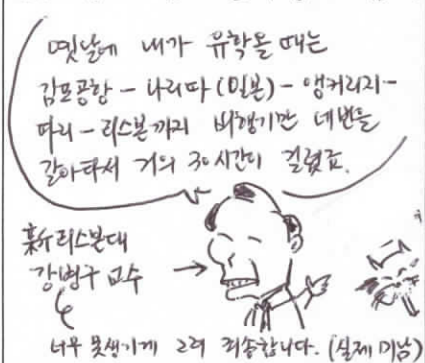
1972년 병아리 감별사였던 원종성씨가 포르투갈 중북부의 Caramulo의 지역농장에 취직이 되어 한국인으로서는 처음 포르투갈 땅을 밟은 뒤,



1974년 카네이션 혁명이후 KOTRA와 대사관이 개설되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정선용씨가 리스본 스포르팅클럽 태권도 사범으로 입국했으며,



1979년 전속 제조업체인 '천일사' 현지공장 직원으로 세가구가 들어오며 한인사회를 구성하기 시작해, 현재, 150여명의 교민사회를 구성하고 있지.



머나먼 땅, 포르투갈에서 구성된 한인회는 한글교육을 통한 한국인의 정체성을 심어주고자 그 구성과 동시에 한글학교를 설립했고(1980.9.6),



△ 개교당시 사진  
이 개교당시 사진은 거의 40이 넘었지...

**TAEWKONDO** Sessão de arte marcial que desenvolve o físico e o estado mental. É também utilizada como uma técnica de auto defesa e desenvolve um grande nível de auto confiança.

▲ 리스본시대 유명 스포츠클럽의 태권도 소개

당시 한글학교 개교는 '포르투갈의 한국'이란 제목으로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는데,



한글학교는 2010년 개교 30주년을 맞이하여, 한인회와 함께 여전히 교민사회의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 개교 30주년 기념식(2010.10)

어쨌든, 400여년전 먼저 우리땅을 밟았던 포르투갈인들에게, 이제 한국은 떠오르는 아시아의 경제대국으로 위상을 높여가고 있으며



이제는 K-POP을 비롯한 한류 바람까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불고 있으니,



옛 포르투갈 조상들이 보면 참 '오래 살고 불일이다'라고 하겠지?



포르투갈 조상들 포르투갈 후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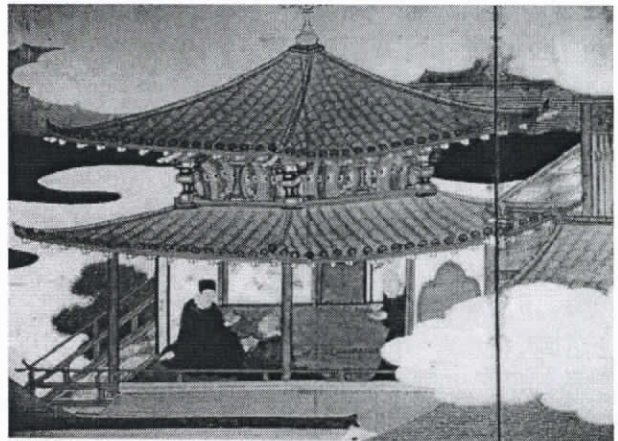


참고>

1. 16세기 포르투갈은 일본에 진출하며 경제·문화적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미쳤다. 즉, 당시 타바코·플라스크·빵 등 포르투갈어가 전해졌고, 예수회를 통한 천주교의 전파도 이루어졌으며(Luis Frois 신부가 저술한 '일본사'에 보면 임진왜란 당시 왜장 '고시니 유끼나가(小西行長)'가 Agostinão라는 세례명으로 등장하는 등 다수의 일본인들이 세례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적혀있다), 덴푸라[天浮羅, てんぷら]와 같은 일본 음식의 어원도 포르투갈에서 왔다고 한다.



포르투갈인들의 일본 도착: 남반 예술의 병풍(1590-1614)



일본의 한 코리에서 사람들과 문화의 만남(남반 병풍)

2. 여기서 잠깐. 당시 일본은 그것이 의도된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포르투갈인들의 한국에 대한 기록이외 다른 유럽국가들로의 한국인 진출에 주요 거점이 되었으니, 그중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오세영씨의 소설 '베니스의 개성상인'으로도 유명한 '안토니오 코레아'의 이야기이다(우측의 루벤스의 '한복입은 남자(Korean Man)' 그림의 주인공이라고도 함).

그는 정유재란 당시 왜구의 포로가 되었는데, 이후 왜구가 총포 거래상인 네델란드 상인에게 거래대금의 대가로 그를 팔았고, 이후 여러 단계를 거쳐 이태리 메디치 가문이라는 최고권력자 가문에 팔려가 가문의 집사로서 상당한 신망을 받았다고 한다. 메디치가문은 당시 최고의 화가인 폴 루벤스에게 이 사람의 초상화를 의뢰하여 불후의 명작이된 '한복입은 남자'라는 그림까지 그리게된다. 그는 '안토니오 코레아'라는 이름으로 메디치 가문의 신망과 총애를 받아 시실리섬에 메디치 농장관리자로서 텃밭을 만들고 정착한 뒤, '코레아나'라는 마을을 만들었다.

현재 '코레아나'는 인구10만정도의 도시이며, 88올림픽 당시 시장과 주요 인사들이 할아버지 나라라고 서울을 방문하기도하였는데, 현재 시실리 서쪽에 위치한 가장 근면하고 부유한 시골마을이며 이곳 출신 대부분은 뉴욕으로 건너가 변호사 등으로 자리잡았다고 한다.

(이상 1988년 당시 조선일보 기사: 출처- 네이버 지식검색)

... 우연에서 출발했지만, 결과는 의미있게된거라고 할까? 하지만 머나만 고향을 그리며 눈을 감았을 생각이 웃기를 머미게한다.



3. Luis Frois 신부의 '일본사(Historia de Japam)'에 묘사된 한국

Frois 신부는 그의 저서 '일본사(Historia de Japam)'의 제70~79장에 걸쳐 임진왜란 전 일본의 상황과 조선 침략의 배경, 그리고 임난 초기의 전쟁상황에 대해 상당히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제70장에는 일본이 중국을 치기 위해

조선을 점령하고 중국과의 전쟁시 군수품과 식량조달을 목적으로 군사를 일으켰다고 나와있으며, 당시 조선과의 무역을 활발히 하고 있던 쓰시마섬의 영주가 조선 침략의 상당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쟁의 선두에 서겠다고 자원했다고 적고 있다.

제71장에는 조선에 대해 "8개의 지방으로 구분되어있고 남쪽에는 섬(제주도)도 있다. 조선인들은 높은 수공예 기술이 있고 활을 잘다룬다. 중국인들에게 공물을 바치지만 중국인들이 조선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다. 한편, 1년에 300명의 일본인들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국과의 무역을 허락하지 않으며, 만약 일본으로 가던 포르투갈 선박들이 기상악화로 조선에 이르게되면 어떠한 변명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즉시 전투를 벌여 쫓아낸다. 말은 중국의 것보다 발음하기가 더 쉽다." 라고 설명하면서 조선을 방문했던 사람들에게 들은 것이라고 적고 있다. 또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의 왕에게 중국을 정복하기 위해 조선을 통과할 수 있게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조선쪽에서 이를 거절해 군사를 동원하게됐다고 설명하며, 훈련이 아주 잘된 군사들이라고 묘사했다.

제72장에는 고시니 유키나가(세레명 아고스피뉴)가 만오천명 이상의 병력을 실은 함대를 이끌고 쓰시마섬을 출발해 부산과 동래에서 전투한 것을 설명하면서, 조선인들이 임금에 대한 충성심이 강해 거의 전부가 죽을때까지 싸웠고 그들의 장수들이 제일 먼저 죽었다고 적었다. 특히, 동래부사 송상현의 부인이 포로가 되어 토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보내졌으나 극심한 저항과 엄청난 통곡을 하는 바람에 다시 조선으로 보냈다는 내용도 있다. 한편, 고시니 유키나가가 부산,양산,밀양,청도,대구,경주,문경까지 점령하고 전황을 보고한 편지를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받고 엄청 기뻐했다고 설명했다. 이 편지에는 '조선의 지주들로 부터 매우 가혹한 대우를 받아온 농부들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인정과 관대함으로 대할 것이라고 하자 매우 기뻐했다' 라고도 적고 있다.

제73장에는 충주 탄금대에서의 신립 장군이 이끄는 조선군과의 전투를 묘사하면서 조선의 장수를 생포하여 살려주겠다고 했으나 그 장수는 이를 거절하며 자기 목을 치라고 했다고 하여 결국 그렇게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이 전투로 조선왕은 가족과 대신들을 이끌고 피난을 가게되었고, 고시니 유키나가는 함께 참전한 정적(政敵)들에게도 존경을 받게되었으며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승전보에 거의 정신이 나갈 정도였다고 묘사하고 있다.

제74~76장에는 왜군이 각지방에서 의병들의 습격을 받고 해전(이순신장군의 당포해전 등)에서의 참패로 보급로가 끊겨 상당한 난관에 봉착했다고 설명하고, 고시니 유키나가가 평양을 점령한 이후 명나라 원군의 공격을 막아냈지만 추위와 보급로의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적고 있으며, 명나라와 휴전 협상의 과정이 묘사되고 있다. 특히, 휴전 협상과 관련 "중국이 강하면서도 일본과의 전쟁 대신 협상을 추진하려는 이유에 대해 중국은 조선땅을 일본이 차지해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으며, 왜군이 매우 강한 전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평화협정을 맺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판단" 했다고 적고 있다. 제77~79장에서는 결국 보급의 희망이 없어 왜군이 철수하기로 했으며 이후 명나라와의 협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출처: '포르투갈 신부가 본 임진왜란 초기의 한국', 강병구, 까뭉이스재단/주한포르투갈문화원(1999)

4. Manuel Godinho가 제작(1613년)한 지도상 나오는 한반도 등 아시아 전도



아시아 지도(22cm×31cm), 1613년, 마누엘 고딩유

'Coria, 라고 한반도가 표시되었고, 지금의 동해는 'Mar Coria, 라고 되었지'

일본해 (Mar Japon) 는 일본열도의 동쪽이구만.

거의 400년전 이런 지도는 그랬다는 건 정말 대단하리.

왜 포르투갈은  
구제금융을  
받게되었나?

지금까지 포르투갈의 찬란했던 대항  
해시대를 얘기했는데, 사실 이 만화를  
그린 것은 역사책을 만들려는게 아니니  
다른 역사얘기는 다음에 하지.

브라질, 아즈카카 등등  
더 볼 얘기가 있는데  
...  
나중에  
한번  
같이  
볼게요

사실, 포르투갈은 16세기까지 화려한  
역사를 장식한 이후에는 세계사에 있  
어 큰 빛은 보지 못했어.

이후 세계사는 너덜너덜한  
영국이 중심이 되었지

오히려, 그 이후에는 유럽에서 다소  
낙후된 이미지로 자리매김을 하다가  
EU 회원국에 가입(1986)하며 다시  
세계무대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러닝도  
조각기 썰버야

불명예스럽게도 2011.4.7 구제금융  
대상국가로 유명세를 타게되지.

당시 산  
1명은  
강박했어

EU 가입이후 성장을 거듭하던 포르투  
갈이 어쩌다가 구제금융을 받게되었  
을까? 우선, 유로존(유로화를 쓰는 국  
가들)에 가입하면서 문제는 시작된다.  
(포르투갈은 99.1 유로존 가입<sup>2)</sup>)

'유로' 라는 동일한 통화를 사용한  
다는 것은 각국의 중앙은행이 화폐공  
급을 통해 펴는 통화정책의 주권을  
유럽중앙은행(ECB)에 넘긴다는 것인데,

앗!  
라이프  
나한테  
말해

이렇게되면 환율과 금리라는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수단을 정부가 독자적  
으로 사용할 수 없고, 통화정책은 독  
일.프랑스 같은 강대국 중심으로 운영  
이 되지.

라이프  
해줘야  
않아?  
오랜  
비었다!

원래, 한나라의 기초경제력 이상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경기과열' 시에는  
투자 등 수요의 과잉으로 물가가 상  
승하고 부동산·주식의 투기가 느는데

부들부들

이럴경우 그나라의 경제 전망을 암중  
개보는 외국자본들이 해외로 빠져나  
가 환율이 상승하게된다.

야, 이거  
"정수"해야  
겠다

My name  
is 천수.

₩1 → ₩1,200  
↓  
₩1 → ₩1,300

워라가 귀해져  
사려는 값이  
오르네.

화환시장

이처럼 환율은 경제이상을 미리알려주  
는 신호등 역할을 하는데, 보통 정부  
들은 통화량감축이나 금리인상 등의  
통화정책으로 경기를 연착륙시키지만

야, 그럼 우리 돈도 시장에서 줄어서  
귀하게 만들거.

가스를  
줄게

이러한 통화정책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면 그만큼 국가 경제의 위기에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없게되는 거야.

어?  
이거 데 가스가  
안 줄어드냐?

도시가스  
회사에다  
문어박야  
구해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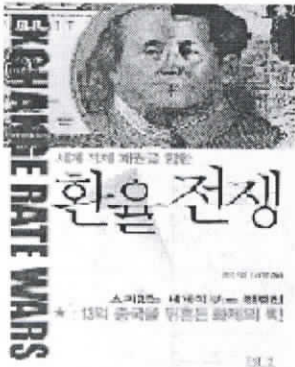
5) 1992년 EU회원국이 단일통화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이하여야한다' 등 5가지 선행조건을  
제시한 '마스트리히트 수렴조건(Maastricht Convergence Criteria)'을 따라야하지만, 1999~2001년 유로화 가입국 선정시  
통합을 공고화하기 위해 유로화를 최대한 많은 국가에서 출범시켜야한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EU회원국들은 마스트리히트 수  
렴조건을 완화해 적용하였고, 포르투갈·스페인·그리스 등 유로화 가입 전 2년간 재정적자가 GDP대비 3%이상인 국가들도  
유로존에 가입하여 향후 회원국들의 재정 불건전성 위험을 내포한채 유로존은 출범하였다.

난  
영국

난  
바우어

80년대 교차의  
주요 멤버들이요.

2010년말부터 미국과 중국간 '환율전쟁'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만큼 각 나라가 환율에 민감한 것도,



환율을 위시한 통화정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해주는 대표적 사례이기도 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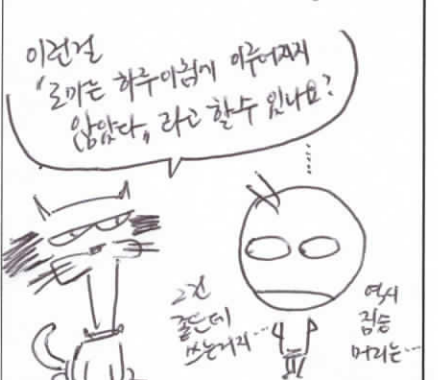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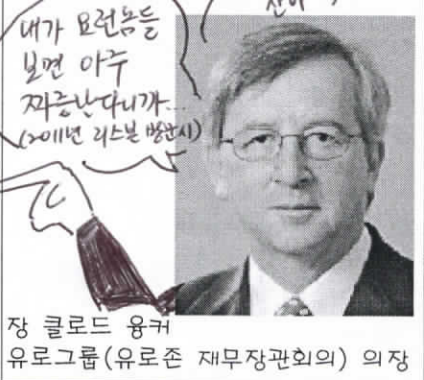
두번째, 유로존이라는 단일 통화와 환율의 적용은 유로존 회원국간 경제력에 차이가 있을 경우, 이들간에 불균형만 심화시킬 소지도 있어,



즉, 단일 통화권내의 통화정책은 아무래도 독일, 프랑스와 같은 강대국 중심으로 돌아가지 포르투갈과 같이 작은 규모의 국가를 배려하기는 힘들지,

아.. 물론 유로라는 단일통화의 사용이 포르투갈 경제위기의 원인의 한 축이긴 하지만,

사실 그보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장기간 지속된 저조한 성장률로 재정적자의 누적이 심화되었고 이것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본격화되었다는 것이 중론이야,



실제로, 포르투갈은 지난 10년간 거의 1%수준 이하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계속 증가했다,

이는 유로존 통합초기 포르투갈에 저금리로 대량 유입된 자금들이 주로 비생산적 분야인 부동산, 주식투자, 복지 및 공공부문에 집중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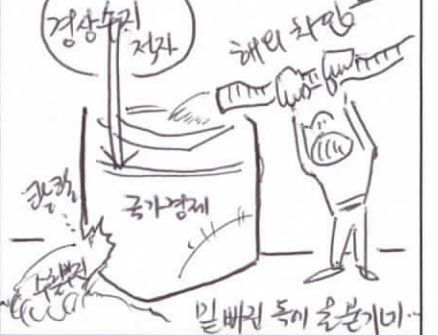
독일이나 북유럽과 같은 제조업 기반을 다지지 못했고,



그나마 있던 제조업도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지만 임금은 낮은 노동력을 보유한 중동유럽 국가들과 중국 등 신흥국들과의 경쟁에 직면한데다

경직된 노동시장과 낮은 노동생산성은 해외투자 유치를 어렵게하고 비정규직 고용만 늘려 산업 전반의 생산력을 약화시켜

수출 부진→경상수지 적자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계속 해외차입으로 보전하기만 했지,



상황이라면 정부는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 조세를 증가시켜 정부 수입을 증대하고 각종 국책사업을 줄여 정부 지출을 줄이는 '긴축정책'을 쓰는데



이럴 경우 다시 경기가 위축되어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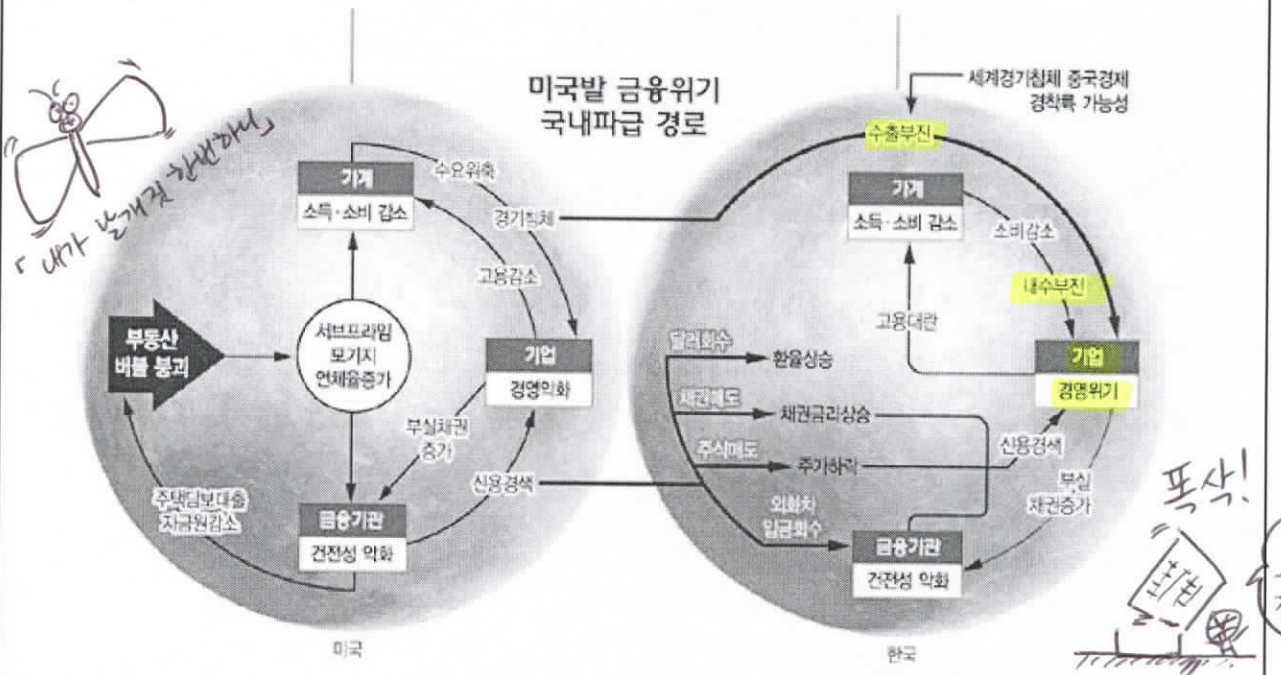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외로부터의 자원조달이 필수적이고, 가장 건전한 방법은 수출 증대나 해외투자 유치인데,



수출 증대  
외국 투자  
유치로  
경제  
성장극복!

마침, 2008년부터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는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물론 유럽 등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가져왔고, 특히 수출의 75%가 유럽에 집중되다보니 유럽의 경제위기는 안그래도 부진한 포르투갈의 수출에 찬물을 끼얹게 되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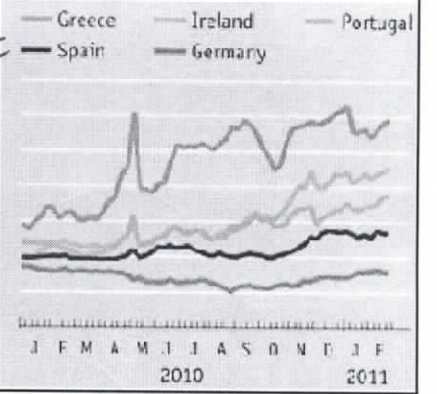
이러한 극심한 경기침체는 포르투갈 같이 관광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국가의 실업률도 급증시켜



안그래도 방만한 복지제도를 운영해 온 정부의 사회보장성 지출을 더욱 확대시켰고<sup>6)</sup> 채무는 늘어만 갔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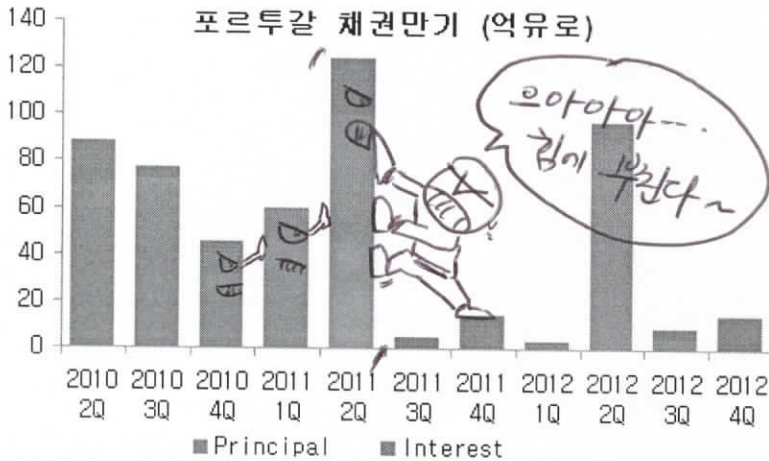


점점 국가채무 상황에 필요한 외화의 확보도 어려워지면서, 추가로 채권을 발행하는데 있어 시장은 점점 더 높은 이자를 포르투갈에 요구하게 되었어.



6) 포르투갈은 90년대 연평균 2.8%에 이르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2000년대 들어 0.7%까지 크게 낮아졌는데도 정치권과 국민들은 개혁에 둔감했다. 유럽국가 중 가장 높은 실업급여 수준(재직중 소득의 40% 이상)에다, 산별 노조의 단체 임금협상으로 임금 하락은 거의 없었던 결과다. 유로존이라는 보호막 안에 들어왔다는 안도감이 누적되는 체질약화 요인들을 외면하게 만 들었다는 평가가 많다(한국일보 2011.4.20일자 경제면 6면).

결국, 2011년초부터 아슬아슬하게 진행되던 국가채무상환의 위기는 2분기 만기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이 다가오며 극에 달했고,



포르투갈 정부가 마지막 배팅으로 제시한 긴축정책안(안정성장프로그램)이 국회에서 부결(3.23)되자, Socrates 총리는 4.6 구제금융을 발표하게 되지만, (시리아우에도 감지 작은리)



이후, 포르투갈은 EU와 IMF로부터 약 78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지원받기로 합의하고 대신 강도 높은 긴축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으며,



6월 조기총선으로 구성된 신정부는 과감한 긴축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제 상황이 약간 나아지긴 했지만,



앞으로 계속 계속될 정부의 긴축정책 속에서 높은 실업률, 물가상승, 복지 감소 등의 시련의 시기를 국민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가 문제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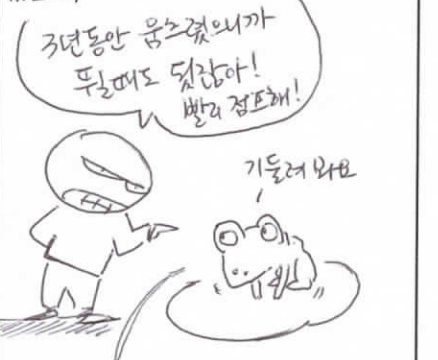
실제로 2011년말 전체실업률 13.4%에 청년실업률은 30%에 육박하고 있는 최대의 경기침체 상황에서



2012년 예산을 보면, 각종 근로자 수당 축소, 의료보조비 지출 삭감, 부가가치세 인상 등은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가져다주고 있거든.



이제, 포르투갈내 모든 관심은 경제를 얼마나 빨리 회복시키냐에 집중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포르투갈의 미래를 마냥 어둡게 볼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야,



포르투갈을 위기에서 탈출시킬 원동력은 무엇일지?



다음 장에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자구.



# 포르투갈의 힘

최근들어 많은 국내의 언론과 경제 전문기관들이 「포르투갈」 이라고 하면, 경제위기에 빠진 나라로 치부하기만 하는데 일색이었던 것 같다.

필자는 포르투갈에 머무는 2년반동안, 내가 근무하는 나라가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가슴아프기도 했지만,



외교관이란 사람이 무작정 주재국만 두둔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점이 이나라의 문제였던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알려야한다고 생각했었다.

한편, 이나라는 문제점만 있는 것인가? 내가 2년반동안 있으면서 포르투갈을 느꼈던 것은 신문지상에서 천편일률적으로 다루는 내용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인가 하는 자문(自問)을 하게되었다.

그래서 포르투갈이 가진 장점을 알고 이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는지 실마리라도 제시한다면, 그 또한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하여 자료들을 조금씩 모았고,



그래서 라면박스로 한 개정도의 영선된 분량을 모았지만, 후일을 기약하고 여기서는 포르투갈이 가진 많은 장점 중 두가지 분야만 설명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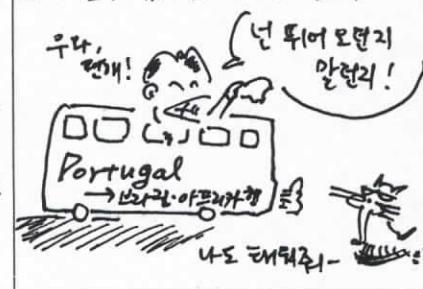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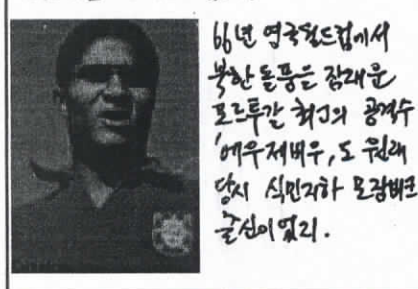
첫 번째는 전세계 2억2천만이 사용하는 포르투갈어 사용국 공동체(CPLP)<sup>1)</sup>의 중주국이라는 점인데, 회원국 중 브라질, 앙골라, 모잠비크 등은 최근들어 풍부한 자원 등을 바탕으로 주목받고 있는 국가들이지.



이들은 과거 포르투갈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국가들인데 그를 통해 포르투갈의 문화와 제도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고, 지금도 포르투갈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지.

이는, 떠오르는 경제대국 브라질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자원부국 앙골라(석유), 모잠비크(천연가스) 등에 진출하는데 있어서 포르투갈은 훌륭한 관문이 될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미, 미국은 2010.6 포르투갈을 활용한 아프리카 진출 전략에 대한 대규모 포럼인 'Access Africa Forum' 을 리스본에서 개최했는데,



1) 포르투갈어 사용국 공동체(포르투갈어: Comunidade dos Países de Língua Portuguesa, Community of Portuguese Language Countries, 약칭 CPLP) 포르투갈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간의 친목과 단합을 다지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 기구이다. 2년마다 회의를 개최하며, 8개 회원국들의 인구 총합은 약 2억 2300만 명에 달한다.

앙골라 등 포어권 아프리카 시장의 접근 수단으로서 포르투갈은 동일한 언어를 쓴다는 것 이외 해당국가와의 활발한 교역 및 현지 진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기반을 갖췄다는데 높은 점수를 받았지2).



이 포럼에서는 Obama 대통령의 제언을 상기하면서, 미국은 아프리카 포어사용 국가로의 진출에 있어 포르투갈을 활용해야하고 그 방안으로



" 미국의 중소기업들의 새로운 시장 개척에 있어 그 나라에 대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충분히 활용하세요. "

2명, 생선가게는 제게... (오)

① 양국 관·재계 인사가 동시 참여하는 포럼 등을 통한 정보의 공유 ② 재생에너지·IT·통신 이외 섬유·건설 자재·와인 등 전통적 무역 거래를 활성화로 포르투갈회사와의 유대 강화



③ 포르투갈에 진출해있는 자국 기업이나 포르투갈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로 진출하는 「3자간 사업 연대(three-way business partnership)」에 대한 사례연구의 지속이 제시됐지.



특히, 「3자간 사업 연대」의 사례로, 세계적인 물류회사인 Fedex는 「포르투갈을 중간 기착점으로한 진출」이라는 방식으로 1999년 포르투갈의 운송회사인 Rangle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포르투갈내 사업기반을 마련하고 운영한 뒤, 2006년 앙골라에 진출했는데,



이는 앙골라가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사하라사막 이남 지역의 교통요충지로 높은 투자매력을 갖고 있었지만, 사회기반시설의 부족 등 투자의 위험요소가 많았으나 선택한 불가피한 조치로 시간은 걸렸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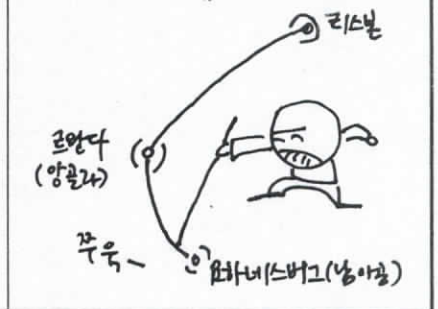
포르투갈에서의 사업 구축 경험은 미국이나 다른 유럽에서의 방식보다 앙골라에서 적용되기 수월했고,



포르투갈에서 근무한 직원들의 앙골라 파견을 통해 현지 직원 교육에 활용하는 것은 기업의 현지화 전략에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거야.



이러한 앙골라 진출을 통해 기존 '리스본-르완다' 간 항공편 노선을 활용하여, '리스본-르완다-요하네스버그'를 새로운 물류 기지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기에 이르렀지.



2) 동 포럼에서는 아프리카의 포어권 국가 진출을 위한 포르투갈의 강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 활발한 교역 및 현지 진출

포르투갈은 최근 대아프리카 수출량이 3배로 증가하는 등 유럽 국가 중 아프리카와의 교역량이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로, 만여개 이상의 기업들이 이들 국가에 진출하여 주요 교역국으로 자리잡고 있음. 진출 기업으로는 Sonae(제조, 서비스), Pestana(숙박, 여행), Millenium BCP(금융), Mota Engil(건설), Galp(에너지), PT(통신) 등이 있음.

2. 현지 진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 기반

포르투갈은 언어 이외에도 ① 이들 국가로의 다수의 직할편을 갖고 있어 접근이 용이하고 ② 식민지시대를 통해 확립된 유사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공유하고 있으며 ③ 장기간에 걸쳐 확보된 사업적 유대 관계를 구축하고 있어, 이들을 향한 관문(Gateway)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독보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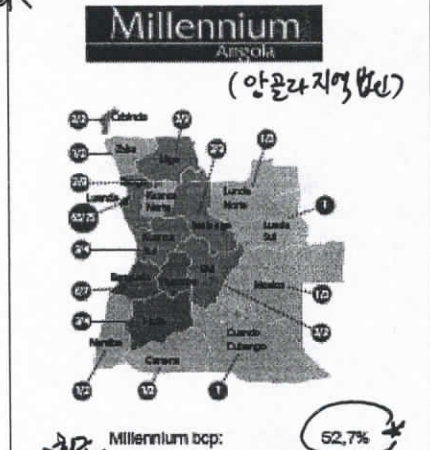
3. 또한, 언어·역사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외교·경제 전 분야에서 포어사용 국가들과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갖고 있는 바, 포르투갈 정부는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 및 투자를 정책의 우선 순위로 두고 매년 민·관 합동 경제대표단의 방문을 통해 주요 도시와 투자 관계기관과의 교류를 늘려나가고 있음(일례로 2009년 대모잠비크 수출은 전년 대비 30% 급증했으며, 포르투갈은 앙골라의 제1위의 수입상대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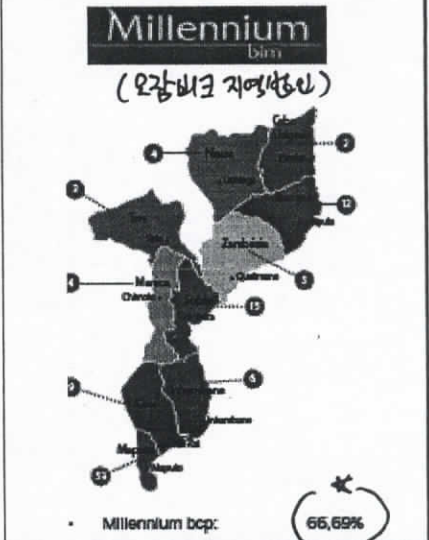
또 하나의 「3자간 사업 연대」의 방식은, 이미 진출해있는 포르투갈 기업·기관 등을 활용하는 것인데, 포르투갈의 대표적인 금융 그룹인 Millennium BCP의 양골라와 모잠비크 진출 사례이지,



Millennium BCP 은행은 양골라와 모잠비크 현지 은행을 운영하면서 금융·환전·투자 자문·재무 설계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엄청난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러한 포르투갈 금융기관의 활용은 현지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자금 조달 및 투자분석에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야3),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아프리카 진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그 방법론이 여러 가지가 제기되고 있는데,



북미, 대륙보다 크고 아시아는 대륙의 70% 크거나 되며 50개국 넘는 아프리카에 대해 효과적인 접근을 하려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그룹화시킬 필요가 있고, 언어가 아프리카 국가들의 사회적·제도적 특수성을 이해하고 진출 노하우를 습득하는데 매우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골라·모잠비크 등을 포르투갈어를 바탕으로 그룹화하고 이들 국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포르투갈을 활용한다는 동 포럼의 아프리카 접근 방식은 매우 주목할 만한 것이지,



이는 또한 「포르투갈어의 중주국」 포르투갈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단면이고, 그래서 2011년말부터 중국의 포르투갈 진출이 두드러지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거야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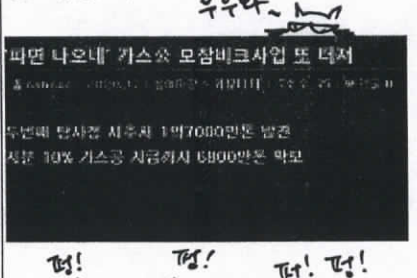
- 이외에도 포르투갈의 국제상거래 전문로펌인 CSA는 ① 포어사용 국가들의 법률은 포르투갈에 기원을 두고 있고 ② 이들 국가들의 법조인 및 정치인들의 상당수가 포르투갈내 대학원 등 고등교육기관으로 유학 경험이 있어 해당국내 탄탄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으며 ③ 이들 국가로의 대규모 투자에 있어 포르투갈 법률가들의 지원이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기업투자에 필요한 법률 자문이나 인적네트워크 활용을 위해서라도 포르투갈내의 법률회사의 활용은 필수적이라고 언급하였다.
- 포르투갈 언론들은 중국의 장강삼협집단지공사(이하 CTGC)가 2011.12.22 포르투갈의 대표적인 국영 에너지기업인 EDP 전체 주식의 21.35%를 현재 주가보다 50% 이상 높게 평가된 금액인 27억유로(약4조원)를 제시하고 인수하는데 성공하여 EDP의 최대 주주로 부상한 것과 관련, 중국이 위와 같이 파격적인 제안으로 EDP 주식 인수에 주력한 것은 ① EDP가 수력·풍력발전 등에 있어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유럽·미국·브라질 등에 활발히 재생에너지 사업을 전개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어, 포르투갈의 재정위기 상황이 오히려 이러한 우량기업의 지분 확보에 적기라는 점일 뿐아니라 ② 포르투갈은 물론 브라질·양골라 등 중남미와 아프리카의 자원부국들과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어 해당 시장 진출을 위한 훌륭한 파트너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포르투갈을 활용 할만한 일이 있었는데, 2011.10 포르투갈의 국영 에너지기업인 Galp Energia사가 모잠비크의 Rovuma 지역에서 초대형 천연가스정을 발견한지 1주일 만에 추가로 포르투갈에 12년간 공급할 수 있는 분량의 대형 천연가스정을 발견했다고 발표한 일이다.



◇모잠비크 해상광구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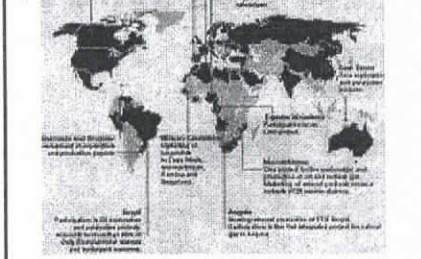
이 모잠비크 천연가스 개발 관련 국제 컨소시엄에 이탈리아 Eni사가 70%, 포르투갈 Galp, 한국가스공사(KOGAS) 및 모잠비크 국영에너지회사(ENH)가 각각 10%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는, 앞서서 약간 언급했지만 포르투갈이 에너지 특히 재생에너지 개발분야에서 다양하고 상당히 앞선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자원 개발 관련 브라질이나 아프리카 포어권국가 진출에 있어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포르투갈 기업의 활용 및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모색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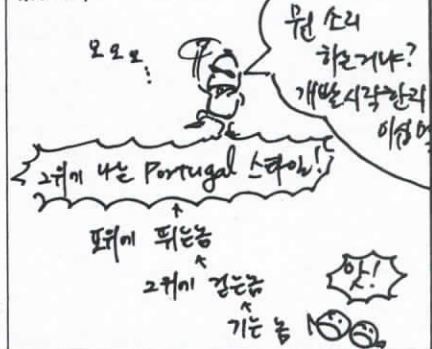


▲ Galp사의 전세계 사업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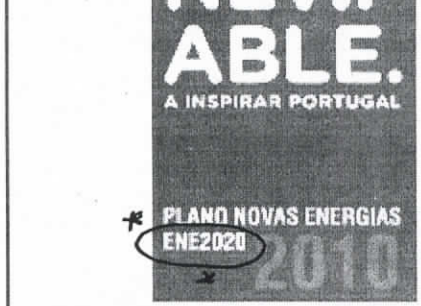
이 천연가스정 개발에 우리 기업이 포르투갈 및 모잠비크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 것은 향후 해외 자원개발을 위한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인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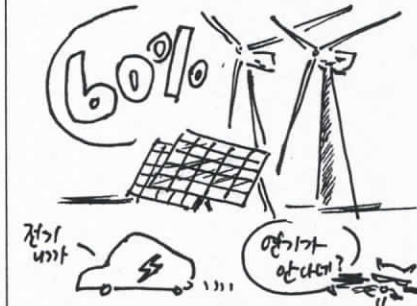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부족하여 에너지원의 대의존도가 높은 포르투갈은 일지감치 재생에너지 개발에 주력을 했는데,



2010년 재생에너지 부분의 개발과 관련산업 육성에 집중하고자 '2020 국가에너지전략(ENE 2020, Estrategia Nacional para a Energia 2020)'을 수립하고



2020년까지 전기생산량의 6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전기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시범 프로젝트로서 Mobi.E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었지.



이미 포르투갈은 원전없이도 2010년 국가소비전력의 52%를 재생에너지에서 충당하는 등 세계적인 수준의 재생에너지 사용국가로 발돋움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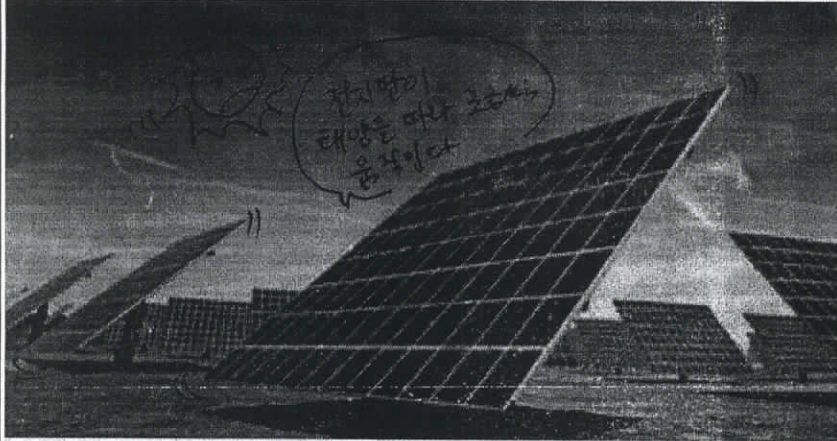
이미 1988년 최초의 풍력발전 단지가 아조레스제도에 설립된 이래 지속적으로 풍력에너지 개발을 위해 노력해온 포르투갈은 EDP Renovaveis라는 세계 4위의 풍력발전 기업을 배출했고,



최근 그 효율성 등에 있어 각광받고 있는 해상풍력분야에 있어 최고의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해상 부유(浮游)식 발전인 「WindFloat」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단계까지 이르고 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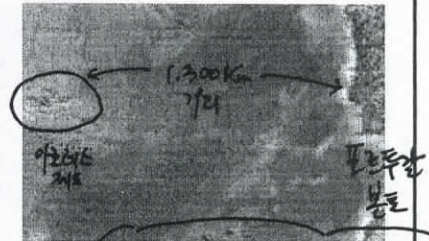


태양광 발전에 있어서도 흑독한 더위와 가뭄으로 악명높은 지역을 한때 세계 최대(2011년에는 4위)의 태양광 발전단지<sup>5)</sup>로 바꿔놓기도 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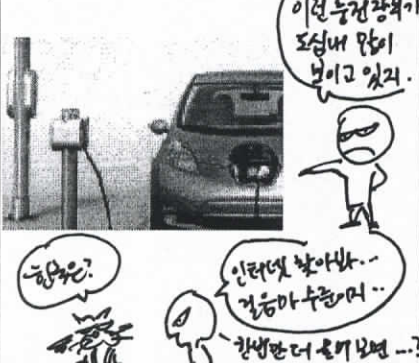
▲ 포르투갈 남부 아마렐레자 지역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전지 발전 시스템

화산지대인 아조레스지역 등에는 대규모 지역발전소도 운영하고 있는 등, 말 그대로 재생에너지의 백화점이야,



지역발전의 허자의 양은 갖는 이 지역은, 지중해 숲은 땅에 파묻고 음식은 짜는 전통적인 방식의 양이 있네.

또한, 전기자동차 상용화에 있어서도 Mobi.E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자동차 생산은 물론 주요도시에 충전소를 설치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도 주력하고 있다<sup>6)</sup>.



지금까지 포르투갈의 대표적인 두가지지만 언급했는데, 포르투갈은 이외에도 관광이나, 음식 등의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포르투갈이 지금의 경제위기를 언제 극복할지 모르지만, 작은 경제규모라는 것은 그만큼 다른 남유럽의 재정위기국가보다는 회복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며,



적어도 필자가 떠나오기 전까지 강도 높은 재정계획을 다른 국가들 보다는 성실히 그리고 눈물겹게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나라의 미래가 언젠가는 밝아질 것이라고 믿고 싶다.



또한, 이러한 위기속에서도 여전히 잠재력을 가진 포르투갈을 우리가 구제금융을 겪고있는 국가라고 무조건 덮어두고 보기보다는, 그들이 장점을 가진 분야를 활용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진다면,



우리는 500년 넘은 오랜 친구와의 우정을 살리면서 또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하며, 나의 사랑하는 나라 포르투갈의 재기를 마음속 깊이 기원해본다.



- 2005.10 포르투갈 정부가 Moura시청이 88% 지분 보유한 시립업체인 Amper Central Solar사측에 Amareleja에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46MW급 태양광 발전소를 개발하도록 허가하였고 2006년 Acciona Energia가 동 프로젝트를 인수하여 총 62MW 설비용량을 갖춘 발전소 건설을 위해 총 2억6천만 유로를 투자한 태양광 발전단지, 총 250헥타르에 조성되어있으며 태양전지판이 태양의 이동을 따라 움직이는 트랙커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 국제에너지기구(IEA) Nobuo Tanaka 사무총장은 2010.10.21 리스본에서 포르투갈이 IEA로부터 전기 이동성(Electromobility) 협력 및 촉진을 위한 세계적인 플랫폼인 '전기자동차 이니셔티브'의 9번째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포르투갈은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웨덴에 이어 2010.10.1 파리에서 발표된 동 이니셔티브의 컨소시엄 국가에 참여하게 되었다. Tanaka 사무총장은 포르투갈의 일간지 Publico와의 인터뷰(2010.10.22)에서 포르투갈의 전기자동차 프로그램(Mobi.E)이 전기자동차 충전소와 신축건물에 충전소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매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흥미롭다고 평가하였다.